



INSTITUTE
FOR
INTERNATIONAL
TRADE

한-EU FTA 협상 타결에 대한 주요국 동향

2009년 7월

통상연구실 조성대 수석연구원

(6000-5394, andycho@kita.net)



한국무역협회
국제무역연구원

〈요 약〉

□ 한·EU FTA 협상 타결에 대한 주요국의 반응을 현지 파악한 결과, 일본의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

- 일본 정부는 한·EU FTA 협상 타결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는 것으로 보이나, 게이단련 등 일본 업계는 유럽 시장에서 일본 상품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, EU와의 FTA 추진을 촉구함
- 미국은 전반적으로 큰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,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본 회의장에서 EU가 미국 보다 한국과의 FTA를 먼저 발효시킬 경우 미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며 FTA 비준이 소극적인 하원 지도부와 행정부를 성토했음

□ 유럽집행위는 협상결과를 적극 옹호하고 있으나, 자동차 업계는 여전히 불만을 표시

- 집행위는 한·EU FTA가 유럽 산업계에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, 제조업, 농업, 서비스업도 FTA 체결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
- 그러나, 독일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의 자동차 업계는 여전히 협상결과가 불균형하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음

□ 중국 보다는 대만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

-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은 EU가 대중 무역적자 해소,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 등을 이유로 한국과 FTA를 추진했다고 풀이하였고, 홍콩의 한 언론은 對EU 수출품이 한국산과 상당히 겹치는 대만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보도함
- 싱가포르 등 동남아 지역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음

<주요국 반응>*

□ EU(브뤼셀 지부)

- 유럽의 언론은 국내 언론에서 일부 보도된 바와 같이 일부 형식적인 절차가 남아 있어 “협상 타결”이라는 표현 대신 “체결 임박”이라는 표현으로 보도함
 - 협상 최종안에 대해 집행위와 회원국간의 일부 기술적인 협의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
- 유럽집행위원회 대변인은 한·EU FTA가 자동차 분야를 포함한 EU 산업계에 새로운 시장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언급함
- 유럽자동차협회(ACEA)는 한·EU FTA가 한국 자동차에 불공정한 이익을 제공하고, 해로운 선례를 남김으로써 타 FTA 협상이나 EU의 주요한 통상 정책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함
- 자동차를 제외한 제조업, 농업, 서비스 분야의 유럽 기업들은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

□ 미국(워싱턴 지부)

- 한·EU FTA 협상 타결에 대해 행정부나 의회 주요 인사의 공식적인 논평은 없음
- 주요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고 있지는 않음
 - 뉴욕타임즈는 AP통신 기사를 인용하여 타결 소식을 보도하였고, 통상 전문 정보지인 Inside US Trade는 우리 정부의 영문 보도 자료를 인용
- 그러나, 협상 타결 직후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본 회의장에서 한·미 FTA를 포함한 3개 FTA의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하원 지도부 및 행정부를 성토했음
 - Dreier 의원 주도로 5명의 의원이 60분여 걸쳐 발언

* 이하는 무역협회 해외지부(브뤼셀, 워싱턴 D.C., 동경, 상해, 싱가포르)에서 현지 언론, 정부, 업계의 반응을 모니터링 한 결과를 종합함.

- 특히, Herger 의원은 “EU가 먼저 FTA를 비준시키면, 한국인들이 미국인의 서비스 보다 유럽인의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며”, “이를 미국민들이 알게 되면 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” 이라고 발언
- 유럽에 생산기지를 둔 일부 미국 기업들은 한·EU FTA의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
- 최근 방한한 Schott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“한·EU FTA의 성공적인 협상으로 인해 유럽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보다 더 혜택을 누리게 됐음을 미국 의회도 분명히 인식했을 것” 이라고 발언함

□ 일본(동경지부)

- 경제산업성은 한·EU FTA의 타결로 인해 일본 업계의 유럽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자국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, 의외로 타격이 적을 수 있다고 평가절하함
 - 자동차는 유럽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고, EU의 높은 환경기준을 고려할 때 일본의 하이브리드카와 경쟁할 한국의 차가 없다고 평가하는 동시에, 자동차 부품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
 - 전기·전자산업은 삼성, LG의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고, 마진율이 낮아 관세의 영향이 크므로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
- 그럼에도 불구하고, 일본 정부는 당분간 아시아 중심의 FTA 체결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발표함
 - 농업 개방 문제로 EU와의 FTA 추진이 어려운 가운데, 최근 지방선거 결과 농업을 중시하는 민주당이 승리함에 따라 EU, 미국과의 FTA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
- 일본 경제단체연합회(게이단렌)은 한·미 FTA 타결 시 보다 더욱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, 전기전자, 자동차, 섬유 등의 분야에서 피해를 우려하고 있음
 - 경단련 관계자는 한국, EU와의 FTA 추진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힘

※ 경단련은 한·EU FTA 협상이 개시되자 2007년 6월 자국 정부에 EU와의 FTA 추진을 공식 건의한 바 있고, 정부간 예비협약에서 FTA 협상개시에 실패하자, 2009년 4월 양측간 FTA 체결을 위한 2차 제안서를 발표

- 일부에서는 한·미 FTA도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어 EU와의 FTA의 발효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,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 되더라도 일본 제품과의 경쟁은 심화되겠지만 큰 위협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음

□ 중국(상해지부)

- 중국관영방송인 CCTV는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는 가운데 한·EU FTA가 양 지역간 무역을 활성화시켜 향후 국제경제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함
- 제일재경신문은 한국의 자동차, 방직, 전자 등이 수혜업종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
-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유럽연구소는 EU가 한·EU FTA를 추진한 목적으로 ▲ 한국을 통해 對중 무역수지 균형 회복, ▲ 세계 시장에서 미국과의 경쟁 강화, ▲ 동아시아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 등을 제시하며 아래와 같이 부연함
 - EU는 2008년 사상 최대인 1,692억 유로의 對중 무역적자를 기록하여,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한국, ASEAN과 FTA를 추진
 - EU는 NAFTA 체결 후 멕시코와, 미·칠레 FTA 체결 후 칠레와 각각 FTA를 체결하였으며, 한·미 FTA 협상 개시 후 한국과 추진
 - 미국에 비해 정치, 문화면에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낮은 동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 추진
- 홍콩 언론인 중국평론신문은 대만의 對유럽 수출품 대부분이 한국산 상품과 겹침에 따라, 대만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만 정부의 대응 부족을 비판함

□ 동남아(싱가포르 지부)

- ASEAN, 서남아, 대양주 지역 국가에서는 한·EU FTA 타결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반응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
- 싱가포르 정부는 한국과 싱가포르가 유럽 시장에서 경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
 - 싱가포르의 일부 언론이 우리 정부의 발표 내용을 전달하는 수준